



교장/김영석

새로운 의욕과 끈기를 가지자.

창

문 너머로 감겨져 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길옆에 골라다니는 마른 은행나무잎 사이로 헤집고 들어오는 싸늘한 바람이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올 한 해에는 많은 일이 스쳐갔습니다. 시작의 기쁨으로 꽃 피던 봄날과 여러분의 꿈이 푸르름으로 싹싹 자라던 여름이 지나고 뜻하지 않은 슬픔의 가을에 오직 끝없는 사랑과 순수한 열정으로 교단에 서셨던 이기호 선생님을 우리 가슴 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나뭇잎만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출발했던 날들이 이제 저만큼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나라 안은 온통 역사와 민족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술렁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끝이 났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3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인 대학 합격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끈질긴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 선생님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잘 치러냈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일종의 허탈감 속에서 교육의 허와 실을 반추해보는 가운데, 지금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 무엇이고, 학교 현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의욕과 끈기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로 마음이 얼룩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과 후회만을 부둥켜 안고 있다면 삶은 너무나 단조로울 것이며 발전

의 길과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밑바탕으로 내일의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회의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욕의 샘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과제이든 공부이든 일이든 간에 훌륭하게 성취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보려는 성공의 경향과, 실패하기 싫어하는 실패 회피의 경향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항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않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이 보통 사람이요,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단념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이 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든지 초고속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는 미숙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금방 포기해버리고는 자신의 능력을 탓하거나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어설픈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의 포기보다는 두 번의 고집스런 끈기로 자신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실패를 맛보더라도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끈질긴 노력을 다짐해 봅시다.

이제 <文苑> 제10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입니다. 이번의 이 책은 개교한 지 십 년째 나오는 것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한 해의 크고 작은 일을 정성스레 묶은 편집부원들과 지도 선생님, 그리고 국어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95년 한 해, 열심히 애쓰신 전교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